

부산종친회 임원회의 개최

부산종친회는 지난 4월24일 오후 6시30분에 부산해압부패 9층에서 임원진 75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원회의를 개최하였다.

사무국장의 사회로 상례행사에 이어 권길상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본인이 회장을 맡은 지가 이제 6년이 되었으며, 오는 5월28일 정기총회 많이 참석해 훌륭한 회장이 선출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

며, 임원선출 등 기타에 대해서는 권영한 고문이 주관하여 진행하여 줄 것을 위임하였다. 이어서 권영한 고문이 격려사로 영주체전개회 참가에 성원과 협조를 당부하였고, 또한 15개 성씨 대성중에 안동권씨 가 매년 전국 체육행사를 개최하고 있어, 타성에 부러움을 사고 있으며, 더불어 오는 정기총회에 많은 참석과 협조를 당부했다.

다음 권영씨(2·1회 회장, 부산종친회부회장)는 차기회장으로 지금 까지 수고하여 주신 권길상회장을 한번 더 연임하여 줄것을 당부하였다.

사무국장의 경과보고와 결산보고가 있었으며 권태현 청년회장의 체전참가 보고를 받고 이날 회의를 모두 마쳤다.

〈권재혁 사무국장〉

대구종친회 야유회

대구종친회(회장 권영하)는 지난 5월5일 오전11시, 대구 신천3동 라이온스회관 5층에서 족친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야유회를 개최했다.

레, 시조묘소 망배에 이어 권영하 회장이 임원소개, 前 회장 권순호 라이온스회장 5층에서 족친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야유회를 개최했다.

순호고문의 격려사로 행사를 마치고, 청장년회 주관으로 만찬·경품추첨·노래자랑으로 족친간에 족의를 더욱더 두텁게 했다.

〈권기범 사무국장〉

제천종친회 제41차 정기총회

제천종친회(회장 권영수)는 지난 4월21일 오전10시, 제천 서울관광호텔 6층에서 족친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1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제천종친회가 제천 서울관광호텔 6층에서 41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있다.

권영수 총무의 사회로 권부득 수석부회장의 개회선언에 이어 권영수회장의 내빈 소개와 족친간에 화합과 단합을 하자는 인사말에 이어 권희필 고문의 격려사가 있었다.

다음 권준용 직전회장·권정무 전 사무국장·권재준 전 청장년회장에게 공로패를 수여했으며, 권지은(세명大(3)), 권하린(대원大(2)), 권순도군(대원大(2))에게 권기태

청장년회장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권재준 감사의 감사보고, 총무의

결산보고, 기타토의, 경품추첨으로 행사를 모두 마쳤다. 〈권영수 총무〉

제1회 권찬혁장학금 수여식(성균관대)



본원 부총재 愚堂 '권찬혁 제1회 장학금 수여식'이 지난 4월17일 성균관대 약학관 3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 장학금은 성균관대 1기 졸업생인 권찬혁(약학·한양약국)대표가 기부한 1억원의 기금을 재원으로 운영하여 올해부터 약학과 학생에게 지급되는 신설 장학금이다.

첫해인 올해에는 학생 7명을 선발해 장학금을 지급했으며, 권찬혁씨는 수여식에서 장학증서와 자신의 자서전을 선물했다.

권찬혁 부총재(81·36世·북아공과 감정공계)는 1957년 성균관대 약학과를 졸업하고 고려인삼 판매지점에서 제조장으로 근무했으며, 이후 약국을 개업하여 현재까지 서울 강남 수유동에서 한양약국을 운영하고 있다.

평생 일군 재산을 장학 및 복지사업에 쾌척했으며, 장학금기

도 성균관대학교에 장학금 1억원을 기부한 바 있으며, 본원 회관건립기금 1억원을 쾌척하고 산청 신동에 서암장학재단을 운영하면서 중·고·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주고 있다.

찬혁부총재는 여유가 있어 사회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은 검소한 생활을 하면서 건물까지 팔아 사회에 환원코자 하는 거룩한 마음 가짐을 가지고 있으니 권문의 자랑이며 귀감이 되고 있다.

〈편〉

한국에 본부를 둔 스텝재단 도영심 이사장

“2015까지 유엔 독립기구 전환” 추진



유엔 세계관광기구(UNWTO) 산하 기구인 스텝재단이 독립된 국제기구로 재탄생할 수 있는 발판을 처음 마련했다.

탈레브 리파이 UNWTO 사무총장과 도영심 스텝재단 이사장(권정달 총재님 부인)은 지난 4월29일

바레인 마나마에서 스텝재단을 독립적인 국제기구로 전환하는 데 합의하고 서명식을 가졌다.

도 이사장은 “올해 8월 20차 UNWTO 총회에서 스텝재단의 독립기구화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라며 “늦어도 2015년 총회에서는 회원국들의 최종 승인을 얻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그는 “스텝재단이 독립기구가 되면 한국에 국제기구 본부가 들어서는 셈이어서 국적이 높아지

고 나아가 학생들이 국제기구에서 일할 기회가 넓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스텝재단 사무실은 서울 중구 한국관광공사 빌딩에 있다.

이에 앞서 스텝재단 이사회는 3월 6일 독일 베를린에서 제10차 회의를 열고 스텝재단을 독립적인 국제기구로 승격시키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동아일보 2013. 5. 1 인용〉

권송성 부총재 해병대에 1천만원 쾌척



국보디자인 권송성 회장(72. 정음. 추밀공파34세. 본원 부총재)은 지난 19일 서북도서를 수호하다가 희생한 장병들을 위해 써달라며 성금 1000만 원을 해병대에 쾌척해 이호연 해병대사령관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씨는 북한의 잇단 도발 위협으로 국가가 힘들 때 국민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다가 해병대 기부를 결심하게 됐

다고 밝혔다.

권 회장은 이날 성금 전달과 함께 '사후(死後) 안구 기증'도 약속했다. 그는 “나라를 지키다가 시력을 상실한 분들이 밝은 빛을 되찾는 데 내 눈이 쓰였으면 한다”고 말했다. 권 회장은 20년 이상 건설업계에서 일했고 현대건설, 대우건설 고문 등을 역임했으며 현 국보디자인 회장.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산성교회 집사도 맡고 있다.

씨는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을 기원하며 2002년 경의선 철로 연결공사 소식이 전해지자 남북 협력기금 1000만 원을 통일부에 전달

했다. 언론을 통해 소년소녀가장의 어려운 사연을 접할 때마다 남모르게 후원을 보내기도 했다.

생활고를 겪던 고종황제의 딸 이문용 씨를 돕다가 그의 양아들이 되기도 했다. 미국에 9·11테러가 발생했을 때도 성금을 보냈다.

이호연 해병대사령관은 그의 뜻에 따라 백령도 연평도 등 서북도서 방위에 힘쓰는 장병들을 위해 성금을 사용키로 했으며, 이런 성원 덕분에 서북도서 장병들이 용기백배할 것이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동아일보 2013. 4. 22인용〉

부산장년회 제12차 정기총회

새 회장에 권장섭 씨 선출

부산장년회는 지난 4월12일 오후 6시, 부산 연산 해압부패에서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2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권민준 총무의 사회로 내빈소개 후 이임회장은 인사에서 별대과없이 임기를 마치게 해준 회원들에게 감사사를 드리며 앞으로 장년회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 권원일 부산종친회 수석부회장은 축사에서 앞으로 부산장년회는 부산종친회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야하는 일꾼으로 힘과 지혜를 모아 달라고 당부했으며, 또한

오늘 이임하는 권영인회장은 종친회 산악회 등반대장으로 매우 수고하였고 신임회장에 선출된 권장섭 회장(구명 보통) 전 청년회장을 역임한 여력이 있으므로 더욱 종사발전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하였다.

이어서 감사보고, 총무의 경과·결산보고가 있었으며 이임회장과 총무에게 각 공로패가 수여되었으며 유공회원 태식부회장에게 권문 순공뱃지가 전달과 신·구회장에게 꽃다발 증정이 있었다. 이어서 신임회장에 회기 전달에 이어서 권장섭

씨(35세, 추밀공파)는 부산장년회 회원 상호간에 친목을 돈독히 하고 투철한 숭조정신으로 부산종친회 발전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임회장단 임원소개 후 권영현 고문의 만세삼정으로 행사를 모두 마쳤다.

이날 선임된 임원명단은 다음과 같다.

▲회장:권장섭 ▲수석부회장:권도영 ▲부회장:권재문, 삼찬, 태문, 영우 ▲감사:권오상, 기화 ▲재무:권장식 ▲총무:권영국

〈권재혁 사무국장〉

창녕종친회 제76차 정기총회

창녕종친회(회장 권화성)는 지난 4월27일 오전 11시, 창녕 도리원에서 족친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6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제76차 정기총회에서 권화성 창녕종친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권규 총무의 사회로 시조 태사공 묘소를 향한 망배에 이어 권화성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안동권씨가 타성에 모범이 되는 것은 △족보지시 △진문형지시 △기로서지시 △호당지시로 선조님들의 훈과 기를 이어 받아 전국 각지의 족친들이 세거 특색과 종친회도 활성화 되고 있어, 앞으로 창녕청·장년회를 발기코져 하니 청장년분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 권유관 경남도위원의 고무적인 축사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 기타 토의 후 만찬에 들어가 족의를 더욱

두텁게 했다.

〈권규 총무〉

부산금정구 종친회 제22차 정기총회

안동권씨 부산 금정구 종친회는 지난 5월 1일 수요일 오후 6시 30분 연제구 거제3동 옛골포소에서 일족 및 회원50여명 참석리에 제22차 정기총회를 개최 하였다

이날 행사는 총무 권원태씨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권용기회장의 개회선언에 이어 국민의례 후 내빈소개는 종

친회 사무국장이 각구 종친회장과 총무 모임 단체회장총무를 소개 하였고 이어서 권용기 회장은 인사말에서 참석하신 일족 및 회원 여러분께 고마움을 표시하고 여러 가지로 미숙한 제가 연임하사 회를 권용기회장의 개회선언에 이어 국민의례 후 내빈소개는 종

을 바라면서 임기동안 열심히 할 것을 다짐 하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을 기원 하였다.

축사로 부산종친회 권준원 수석부회장은 제22차 금정구 종친회 정기총회를 축하드리며 금정구 창립과정과 역대 회장님들의 노고를 칭찬 하였으며 참석율이

저조함을 아쉬워하고 회원들의 협조로 더욱 발전하는 종친회가 되기를 당부했다.

총무의 경과보고와 결산보고는 유인물로 대체 하고 감사보고는 권준길 감사의 보고가 있었으며 권용기 신임회장은 신임임원들의 소개를 하였고 원로회원 권영호씨가 만세삼창을 끝으로 이날 행사를 모두 마쳤다.

〈권재혁사무국장〉

시골 장터 의사 권순효 원장



권순효 원장(53세)은 북아공파 37세손으로 고향인 시골 안계장터에서 10여년전 삼성연합의원을 개원하여 우리 권문의 자랑스러운 일꾼으로 여러 분야에 봉사하고 있다.

권원장의 증조부는 110년전 서양 문물을 받아들여 고향 의성 삼분리에 교회회를 세워 민족 복음화와 후진 자녀교육과 청풍운동에 앞장섰으며, 그 자손으로는 고 권병두 장로, 고 권병로 재헌국회의원, 고 권동철 참의원, 권동환 미국의회 전

도서관장(재미), 전 청주사범대학 학장 권순식 박사 등 많은 인물을 배출한 우리 권문의 자랑스런 집안이다.

그 후손 권순효 원장은 시골 고향에 대형병원(대지 1,000평, 건물 1,000평)을 신축하여 지역민들에게 질철한 의료 봉사로 명성을 떨치고 있으며 그 건물 가운데 100여평을 무료 탁구장으로 운영하여 지역민들의 체력증진에도 기여하며 70여평의 공간에는 거처서 선교회를 권장로와 그의 부인 김정화 권사가 운영하여 인근 구미, 상주, 의성에서 매주 화요일 오전과 저녁시간에 150여명이 모여 예배를 드리고 전도용품 300여점을 나

누어 주며 현재 3년간 327명을 전도하여 지역 복음화 사업에 앞장서며 2003년부터 매년 3,000만원을 의성 서부지역 중고등학교에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어려운 이웃들에게도 남모르게 봉사하고 있다.

또한 의성군 의사회 회장도 맡고 있으며 우리 안동권씨 의성군 종친회 부회장을 맡아 문사 일에도 적극 협조하며 이웃사랑을 위해 벽원 수의의 절반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약속을 충실히 지키는 믿음의 병원으로 봉사하는 권순효 원장은 우리 권문의 자랑스런 인물이 다.

권성훈 서울대 교수

홍진기 창조인상 수상

권성훈(38) 서울대 전기·컴퓨터공학부 교수는 박근혜정부의 핵심어젠다인 창조경제가 어떤 모습으로 실현될 것인지를 한마디로 보여주는 과학자다.

그는 의약과 공학분야의 지식과

기술을 융합, 완전히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고 있다.

권 교수가 개발한 대표적인 기술은 '초고속 확장형 생물검증 플랫폼'이다. 질병진단과 신약개발에서는 반복해서 실험을 해야 하지만

작은 분석 키트 안에서 수많은 실험을 한꺼번에 수행함으로써 분석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기술이다.

그는 “개개인에게 적절한 맞춤형 제품을 찾을 경우 지금은 나홀로 걸리지만 새 기술을 적용하면 이를 안에 찾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교수는 이 세가지 기술로 저능성 미세입자를 만들어냈다.

권교수는 최근 DNA 염기서열 분석을 빠르게 진행하는 기술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편〉

동정



▲15일 권오성 연합사부 사령관이 용산 미군기지 연병장, 주한 미군사령관 특별고문 브래드너씨 퇴임식에 참석해, 박근혜대통령을 대신해 보국훈장 국신장을 수여했다.



▲권영세 안동시장은 22일 오후 2시 안동시민회관에서 열린 제3회 국가유공자 및 보훈 가족취약인 행사에 참석해 국가에 대한 헌신에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했다.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강한 인물 500명에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지능·경제력)이 올랐다.



▲권오을 전 국회의원은 지난 29일 개최된 안동향우신문 25주년 기념식과 정우회 사무실 개소식에 참석해 환담했다.



▲권영진 여의도연구소 부소장은 22일 홍천에서 제18대 국회의원의 경향 및 느낀점을 바탕으로 새누리당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강의를 실시했다.



▲권오갑 축구프로연맹 총재는 K리그 구상원들을 위해 급여 1% 기부 캠페인을 도입했으며, 각 프로축구단이 연구지역에서 지역 사회 상생파트너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적극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혁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은 지난 23일 오후 서울청 칸넨선릉에서 롯데그룹 계열사 임원들과 근로계약서 주고받기운동 협약을 체결했다.

▲한복희씨(권병공 추밀공파 저계종중 부인)가 5월8일 어버이날에 인천시가 주관하는 행사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